

'불법車' 100억대 사기수출

노숙자 모집 할부차 사서 553대 팔아 무역회사 간부·매매조직 등 19명 적발

자동차 불법 매매조직으로부터 할부금이 완납되지 않은 자동차를 싸게 구입해 해외로 수출한 무역회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청은 13일 임시번호판을 단 할부차량 553대를 독일 등 13개국에 92억여원을 받고 수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A무역 전무 이모(45·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A무역 대표 김모(5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아울러 경찰은 노숙자 등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할부금을 내지 않고 A무역에 되판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불법 매매조직 총책 김모(4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안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박모(33)씨 등 3명을 수배했다.

◇사건 개요=자동차 불법 매매조직은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노숙자 등을 모집, 이들의 명의로 GM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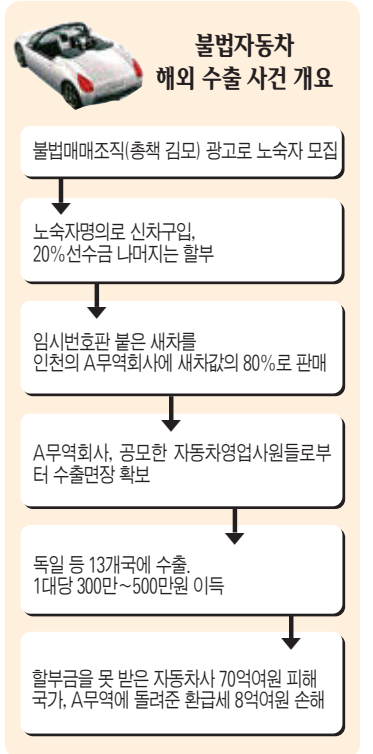
우 등에서 신차를 구입했다.

불법 매매조직은 자동차 대금 중 2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구입했으며, 차가 출고되면 바로 A무역으로 가져가 차 가격의 80%를 받는 수법으로 11억여원을 가로챘 것으로 조사됐다.

A무역은 이 차를 정가보다 3% 정도 높은 가격에 수출해 모두 2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자동차 영업사원 정모(26·구속)씨 등은 수출면장(輸出免狀) 발급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과 '임시번호판 운행허가 반납증' 등을 A무역에 건네 범행을 도왔다.

◇법원 허점=경찰 조사 결과 A무역은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이 정식번호판을 단 차에 비해 수출신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을 악용, 매매조직으로부터 임시번호판 상태의 차량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관은 A무역이 수출한 자동차가 출고된 지 1~3일밖에 지나지 않은 차량임에도 할부금 안납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출을 승인



해 왔다. 세관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기업에는 자동차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에 따라 8억여원을 A무역에 교부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자동차 수출 사기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백운광장 상습정체 해소 가장 합리적 방안 “신호등 로터리+지하차도”

용역 중간보고 동시운동 주장

광주의 최대 관문인 백운광장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호운영 로터리”와 “지하차도”를 동시에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운광장 로터리 시스템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실행방안용역’ 중간보고에서 용역기관인 교우엔지니어링 김경찬 책임기술사는 “고가도로 해체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했다”면서 “하루 11만대의 승용차 통행량을 고려할 경우 신호운영 로터리와 지하차도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호운영 로터리+지하차도” 방식은 사업비 550억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평면 또는 로터리 신호방식은 사업비가 30억원에 불과한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백운고가가는 지난 2003년 건교부로

부터 위험도로로 선정, 오는 2008년까지 철거해야 하지만 그 이후 대안으로 지하차도 건설과 로터리 신호체계 도입 등 의견이 분분해 광주시가 지난 해 11월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김 기술사는 “백운광장은 고가차도가 끝나는 부분과 평면 도로와의 접점 부분에서 교통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고 말했다.

용역기관이 검토한 대안은 신호운영 로터리안과 평면교차로안, 신호운영 로터리안+지하차도 건설안 등 3가지다.

교통혼잡시간대 차량 정체 시간(차량 대기 거리)을 보면 ▲신호운영 로터리안은 442초(182~609m) ▲평면로터리안 523초(245~910m)인 반면 ‘신호운영 로터리+지하차도안’은 정체 시간이 86초(56~227m)에 불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시된 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잠 못 드는 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에 곳따 소나비가 내리겠다.

7월 14일 (음 6월 19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고 소나기	24~32℃
대전	구름 많고 소나기	24~30℃
대구	구름 많고 소나기	23~29℃
부산	구름 많고 소나기	23~30℃
서울	구름 많고 소나기	23~30℃
인천	구름 많고 소나기	23~28℃
전주	구름 많고 소나기	23~32℃
제주	구름 많고 소나기	24~31℃
울릉도	구름 많고 소나기	24~31℃
독도	구름 많고 소나기	25~32℃
영남	구름 많고 소나기	24~32℃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3.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3.0m
남해북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3.0m
목포 밀물 < 04:39 썰물 < 09:49
여수 밀물 < 11:19 썰물 < 05:19

▲해돋이 05:28 ▲해질 19:48 ▲달뜨기 08: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7	23/26	23/28	22/28	23/30	23/30

영어과목 중등교원 임용고시

내년부터 영어 면접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13일 1차 필기시험에서 실시했던 예·체능 실기시험을 2차 시험에서 실시하고, 영어과목의 경우 영어인터뷰 면접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진시험 개선을 발표했다.

개선에 따르면 예·체능 과목은 1차 필기시험에서 모집인원을 현행 130%에서 200% 늘려 선발하고 음악, 미술과목의 경우 현행 체육과목처럼 배점을 40점에서 30점으로 낮추는 대신 2차 시험 실기평가점수를 현행 체육과목처럼 40점에서 50점으로 늘린다.

또 영어과목의 경우 ‘영어인터뷰에 의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수 및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와 자격종별이 같은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에게만 가산점을 인정한다. 즉 일반교과 자격증은 특수교과 임용시험에, 특수교과 자격증은 일반교과 시험에 가산점이 고려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2008학년도부터는 영어과목의 경우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 출제한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 화학물질 배출량

다른 시·도보다 적어

광주와 전남의 화학물질 제조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유독 화학물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2004년 화학물질 배출 실태’에 따르면 광주의 발암 물질 등 유독 화학물질 배출량은 전국 5만1천21t의 0.4%인 193.47t으로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남은 3천249.994t(6.4%)으로 7위를 차지, 경기(9천428t)·경남(6천58t)·충남(4천126t) 등 다른 도에 비해 낮았다.

배출된 화학물질은 대부분 대기로 방출됐다. 광주의 경우 99.9%인 193.24t이 대기에 흡수됐고, 수계(0.103t)와 토양(0.133t)은 0.1%에 불과했다. 전남 역시 99.7%인 3천241.483t이 대기로 새나갔다.

한편 전국에 배출된 유독 화학물질은 202종 5만1천21t으로, 제조공장 취급량(1억1천318만8천t)의 0.045%가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연간 1~10t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전국 2천8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방역 차량 나가신다” 광주시 북구청 방역팀이 13일 태풍과 장마 사이에 반짝 갬 틈을 이용해 우산 동 아파트 단지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불쾌지수 82.5...짜증내면 더 덥다

광주 올 첫 열대야

번덕스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후우와 무더위가 뒤섞이면서, 불쾌지수가 올 들어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광주에는 구름이 잔뜩 끼면서 낮 최고기온이 32.7도까지 올랐다. 습도도 높아 불쾌지수는 82.5를 기록했다. 불쾌지수 80은 그 지역 주민의 절반 가량이, 83은 전원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치다.

이에 앞서 12일 밤에는 광주·전남에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불편한 밤을 보냈다. 특히 전남지방은 새벽 시간 습도가 90%를 넘었고, 광주도 85~88%로 ‘후텁지근’했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5.2도 ▲목포 25.3도 ▲나주 25.1도 ▲구례 25.5도 ▲영광 25.6도 ▲영암 25.5도 등 남해안 일부를 제외한 내륙 대부분이 25도를 웃돌았다. ‘열대야’ 현상이란 새벽 3시~9시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15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남하(南下)하면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23~24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잠 못 드는 밤’은 계속될 전망이다. 비는 17일까지 이어지겠고, 강수량은 200~500mm로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실내에 제습제를 놓아두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때는 30분 정도 가법계 산책을 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外高 지역제한 예정대로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6월19일 발표와 같이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자치체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외고 모집 지역제한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책 추진과 관련해 학부모 및 학생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채운, 이쁜값 하네!

최고급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www.bkbooks.com

(주)빙북출판사 02-527-3388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www.furnituregagaku.com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트치 광주총판

www.touch.com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